

GWANGJU

FOOTBALL CLUB

M O N T H L Y M A G A Z I N E

APRIL 2017

www.gwangjufc.com



PREVIEW

4월은 중위권 진입의 승부처

INTERVIEW

조성준 + 이한도

REPORT

광주를 지키는 증원 트리오

광주FC 3월 매치 분석

2017년 3월 K LEAGUE CLASSIC 



03.04		대구FC	1-0	승	 득점 2	 파울 49
03.12		포항스틸러스	0-2	패	 도움 1	 피파울 33
03.19		FC서울	1-2	패	 슈팅 20	 경고 6  퇴장 0

2017 K리그 클래식 순위표

순위	구단명	승점	승	무	패
1	 제주	9	3	0	0
2	 전북	7	2	1	0
3	 서울	7	2	1	0
4	 상주	6	2	0	1
5	 포항	4	1	1	1
6	 강원	4	1	1	1
7	 광주	3	1	0	2
8	 울산	3	1	0	2
9	 대구	2	0	2	1
10	 인천	2	0	2	1
11	 수원	2	0	2	1
12	 전남	0	0	0	3



래조의 출발 그러나 아쉬웠던 2연패

광주FC의 3월은 희비가 교차한 달이었다. 광주는 기분 좋은 출발을 했지만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

광주는 3월 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구FC를 상대로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첫 경기를 치렀다. 대구는 클래식으로 승격한 만큼 기세도 대단했다. 광주로서는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됐고 뚜껑을 열자 예상은 맞았다. 하지만 승리는 한 방을 가진 광주가 차지했다. 전반 43분 송승민의 크로스를 주현우가 넘어지면서 슈팅했으나 빗맞았다. 그러나 빨리 쇄도한 조성준이 밀어 넣으며 득점했다.

이 골은 올 시즌 클래식에서 가장 빨리 나온 골이었다. 그리고 광주의 승리를 결정한 골이 됐다.

개막전을 승리한 광주는 3월 12일 포항스틸야드에서 포항스틸러스와 2라운드 원정경기를 했다. 포항전 승리로 2연승을 노렸지만 결과는 패배였다. 중거리슛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으나 상대에게 연

속 실점을 하며 0-2로 패했다.

1승 1패가 된 광주는 3월 19일 FC서울 원정경기를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떠났다. 서울은 지난 시즌 클래식 우승팀. 광주로서는 부담이 큰 상대를 만났다. 하지만 광주는 패기로 뚝뚝 뭉쳐 서울을 상대했다. 이는 전반 5분 만에 여봉훈의 패스를 받은 조주영의 선제골로 이어졌다.

하지만 뼈아픈 오심이 승부의 흐름을 바꾸고 말았다. 후반 16분 주심은 박동진의 핸드볼 파울과 서울의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서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했다. 경기 종료 전에도 광주는 페널티킥으로 1골을 더 허용하며 1-2로 역전패했다.

경기 후 후반 16분 박동진의 파울 장면은 오심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모든 승부가 끝난 뒤였다. 결과는 바뀔 수가 없었다. 광주는 두고두고 아쉬운 마음을 가진 채 3월 일정을 마무리 해야만 했다.



강팀과 만나는 4월 중위권 진입의 승부처

광주FC가 강팀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4월에 치르는 5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 싸움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는 제주유나이티드, 울산현대, 수원삼성, 상주상무, 전북현대 순으로 4월 일정을 소화한다. 이 팀들은 다 광주보다 한 수위의 전력을 자랑한다. 수원을 제외한 4팀은 지난해 클래식에서 6위 이내의 성적을 내 그룹 A에서 스플릿 라운드를 치른 팀이다. 수원은 광주와 함께 그룹B에 있었지만 전통적인 강호다. 광주로서는 분명 부담스러운 상대다.

그렇기에 첫 판을 잘 치러야 순탄한 4월을 보낼 수 있다. 4월의 첫 상대는 제주다. 현재 3연승으로 선두에 올라있다. 제주는 활발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어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된다. 또한 제주 원정은 항공을 이용하기에 다른 원정보다 피로가 크다. 체력 관리도 중요하다.

제주전을 잘 치르면 그 다음부터는 쉽지는 않아도 한 번 해볼만한 상대들로 이어진다. 울산, 수원, 상주는 분명 어려운 상대이지만 그렇다고 광주가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팀들은 올 시즌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광주가 FC서울을 압도하는 경기를 했듯이 이 팀들과도 충분히 대등하고 우위에 서는 경기를 할 수 있다.

4월의 마지막 날에는 전북이 기다리고 있다. 광주는 아직까지 전북에 승

리한 적이 없다. 전북전 무승은 이제 한이 됐다. 올해는 그 한을 반드시 풀어내겠다는 각오로 뚝뚝 뭉쳐있다. 경기가 열리는 곳도 광주월드컵경기장이다. 광주가 앞선 경기에서 어느 정도 승점을 확보하며 좋은 분위기를 전북전까지 끌고 간다면 승점을 노리고, 전북전 첫 승도 따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4월 초반의 경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 울산전 결과가 광주의 4월 일정의 향방을 정할 중요한 경기라 하겠다.

4월 광주FC 경기 일정

4월 2일	15:00	vs 제주유나이티드	원정
4월 8일	15:00	vs 울산현대	홈
4월 16일	15:00	vs 수원삼성	원정
4월 23일	15:00	vs 상주상무	원정
4월 30일	15:00	vs 전북현대	홈

김민혁 이우혁 본즈

광주를 지키는 중원 트리오

올 시즌 광주FC의 중원을 지휘하는 3명의 마법사가 등장했다. 바로 김민혁, 이우혁, 본즈다.

광주는 K리그 클래식 내 대표적인 패스축구 팀이다. 패스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라운드에 서있는 11명의 선수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또한 기술이 뛰어난 미드필더들이 패스를 공급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광주는 실력 있는 미드필더들을 보유하고 있다. 올 시즌 남기일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꺼냈다.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지만 미드필더의 능력도 그만큼 받쳐줘야 가능하다. 중원이 흔들리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는 것이 4-3-3 포메이션이다.

이에 남기일 감독은 중원에 배치할 3명으로 김민혁,

이우혁, 본즈를 선택했다. 세 선수는 저마다 장점을 갖추고 있어 각자의 단점을 보완해주기도 한다.

우선 김민혁은 광주의 사령탑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광주 유니폼을 입은 그는 예리한 전진패스가 일품이다. 탁월한 지원 능력을 갖추고 있어 광주 공격의 시작을 알리는 플레이를 한다. 상대도 그점을 알고 사령탑인 김민혁을 흔들려 한다.

그럴 때 옆에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이가 이우혁이다. 김민혁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상대 움직임을 저지한다. 또한 김민혁이 상대에게 봉쇄됐을 때는 이우혁이 전진해 상대를 혼드는 역할도 한다. 두 선수는 시소가 움직이듯이 교대로 움직이며 광주의 연

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본즈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선다. 김민혁, 이우혁이 수비 부담을 덜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것은 본즈의 중원 장악이 한 몫 한다.

이들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일 때 광주는 짜임새 있는 패스와 조직적인 플레이가 펼쳐지게 된다. 이들이 광주를 지키는 트리오라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올림픽대표 출신인 여봉훈도 가세했다. 공수에서 빼어난 능력을 갖췄기에 트리오 중에 공백이 발생한다면 여봉훈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든든한 백업 자원까지 구축한 만큼 올 시즌 중원 트리오가 보여줄 화려한 미드필드 플레이에 시선이 쏠린다.





‘클래식 1호골’ 조성준

더욱 남다른 2017시즌



광주FC 준족 조성준(27)이 2017 K리그 클래식 첫 골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남겼다. 광주 유니폼을 입고 뒀던 지난 2016년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올해 그의 각오는 더욱 남달랐다.

조성준은 지난 3월 4일 대구FC와 클래식 개막전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그리고 전반 43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빠르게 쇄도하며 볼을 골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올 시즌 클래식에서 가장 먼저 골을 넣은 선수로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다.

그는 “정신 없어서 기억은 잘 나지 않았다. (주)현우 발과 대구 수비수가 엮힌 상황에서 볼이 있길래 넣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후 “개막전이라 긴장을 많이 했다. 그러나 연습 때 나온 몇 장면을 잘 끄집어내서 만족한다. 대구보다 준비를 잘했기에 개막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자신의 골과 1-0 승리에 만족했다.

광주가 올 시즌 조성준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빠른 발과 공간 침투,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탁월한 선수다. ‘말형’ 이종민(34)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만큼 젊은 광주의 중심을 잡는 점에서 책임감도 생겼다. 개막전 득점과 승리까지 이뤄낸 후 자신감이 붙은 건 긍정적이다.

조성준에게 지난해는 다소 아쉬웠다. FC안양에서 맹활약 후 광주 유니폼을 입고 첫 클래식 도전에 나섰다지만, 32경기 1골 2도움에 그쳤다. 클래식의 높은 벽을 실감했던 해였다. 그러나 1~2월에 진행된 동계훈련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 했다. 또한 강원FC로 이적한 정조국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책임감도 조성준을 독려했다. 그는 “(정) 조국이 형이 없다 보니 득점할 선수가 필요하다. 선수들과 더 많이 뛰며 희생하자고 이야기했다. 지난해에는 적응 기간이지만, 올해는 다르기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앞으로 호흡을 더 맞추다 보면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조성준은 오는 6월 병역해결을 위해 경찰탐인 아산 무궁화에 입대할 예정이다. 광주 유니폼을 입고 뒀던 시간은 많지 않다. 이제 광주와 클래식에 적응했던 조성준 입장에서 아쉽다. 광주 입장에서와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광주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려 한다. 가장 큰 목표는 입대 전 지난해 보다 더 나은 성과로 팀에 보탬이 되려 한다.

조성준은 “개막전 골로 자신감을 찾았다. 6월 군대에 가기 전까지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열심히 해서 광주가 승점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지난해 1골 2도움보다 더 많이 공격 포인트를 이루고 입대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다짐했다.

광주FC는 올 시즌 새 얼굴의 활약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타 팀에 비해 화려하지 않아도 실속 있는 영입으로 올 시즌 더 강해진 전력을 선보였다. 그 새 얼굴 중 이한도(23)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광주의 '젊은 피'인 이한도는 팔방미인으로 손꼽힌다. 그는 골키퍼를 제외한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 이한도는 개막전부터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동갑내기 친구 박동진과 함께 광주의 수비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현재 부상 중인 김영빈의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전문 수비수인 홍준호와 주전 경쟁에서 당당히 이겨냈다. 그러나 올 시즌 경기에 나서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는 프로 2년 차를 맞았지만, 프로데뷔는 지난 3월 4일 개막전이였다.

이한도는 용인대 재학 시절 대학 최고의 수비수로 꼽혔다. 그는 지난해 전북 현대에 입단했지만, 전북에서 자신이 뛸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 R리그와 시즌 종료 직전 FIFA 클럽 월드컵을 뛰었지만 K리그 데뷔는 하지 못하고 광주로 옮겼다. 그리고 광주에서 반전을 이루며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이한도는 "대구FC와의 개막전 때 떨릴 줄 알았는데 마음이 편했다. 긴장보다 생각을 바꿨다. 남들보다 준비를 많이 해서 덜 떨렸다"라며 "전북에서 많이 배웠지만, 선수로서 가치를 잃어 힘들었다. 광주로 온 이후 축구선수로서 매우 행복하다"라며 기뻐했다.

이어 "개막전에 뛴 이후 부모님께서 축하해 주셨고, 학창 시절 선생님들에게 축하 전화도 받았다. 남기일 감독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축하해 주셨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경기 조율에 많이 조언을 받았다"라고 달라진 시선도 설명했다.

남기일 감독은 동계 전지훈련 때 이한도에게 수비를 위해 많이 뛰는 플레이를 요구했다. 이한도가 멀티플레이어로 유명하지만, 처음부터 수비수로 기용하려는 선택이었다. 가끔 미드필더로 뛸 때 있지만, 수비수로서 적당한 체격과 영리함을 갖추고 있기에 수비수로 선택을 받았다.

개막 이후 중앙 수비수로 출전하면서 스스로 포지션에 맞춰가고 있었다. 이한도는 "다른 포지션에 뛰고 싶다. 바꾼다고 못 하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 수비가 제일 편하다"라며 수비수로 출전하는 것에 만족했다.

이한도는 경기 출전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어려운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준 광주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초반 출전과 활약으로 크게 들뜨지 않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영플레이어상에 욕심난다. 그러나 팀 목표가 더 우선이다. 이제 초반이지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광주는 팀 색깔이 확실하기에 만족한다"라며 "특점도 좋지만, 수비수로서 실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시작일뿐이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프로 2년 차에 데뷔

이한도의 K리그는 지금 시작이다





감독 남기일

1974.08.17



수석코치 이정호

1975.07.23



코치 마철준

1980.11.16



골키퍼 코치 기우성

1978.06.17



피지컬 코치 프랭클린

1987.03.30



GK 최봉진

1992.04.06 193cm/83kg



DF 이민기

1993.05.19 175cm/71kg



DF 김영빈

1991.09.20 184cm/79kg



DF 홍준호

1993.10.11 192cm/85kg



DF 박동진

1994.12.10 185cm/75kg



MF 김정현

1993.06.01 185cm/80kg



MF 이우혁

1993.02.24 184cm/69kg



FW 바로스

1990.04.27 190cm/82kg



MF 조성준

1990.11.27 176cm/67kg



FW 나상호

1996.08.12 173cm/70kg



MF 주현우

1990.09.12 174cm/71kg



DF 이순민

1994.05.22 178cm/72kg



FW 송승민

1992.01.11 187cm/77kg



DF 이종민

1983.09.01 175cm/68kg



DF 정동윤

1994.04.03 175cm/70kg



FW 이종서

1995.06.09 175cm/73kg



DF 이한도

1994.03.16 185cm/80kg



GK 윤보상

1993.09.09 184cm/84kg



FW 정영총

1992.06.24 180cm/70kg



MF 김민혁

1992.08.16 183cm/71kg



MF 임대준

1994.05.04 177cm/70kg



DF 황인혁

1995.05.06 191cm/77kg



FW 조주영

1994.02.04 186cm/76kg



FW 김시우

1997.06.26 180cm/71kg



MF 여봉훈

1994.03.13 178cm/70kg



DF 김지수

1994.08.16 177cm/70kg



GK 윤평국

1992.02.08 189cm/85kg



MF 와다

1994.10.30 170cm/60kg



MF 본즈

1990.02.07 187cm/80kg



DF 정호민

1994.03.31 188cm/79kg



GK 박형민

1994.04.07 189cm/80kg

광주 FC SNS 채널



@GWANGJU_FC



www.facebook.com/gjfc2010/



plus.kakao.com/home/@광주축구

2017시즌 홈경기 일정

NEXT



4월 30일(토)
15:00



vs 전북 현대

5월 3일(수)
15:00



vs 강원FC

5월 13일(토)
15:00



vs 인천 유나이티드

5월 21일(일)
19:00



vs 포항 스틸러스